

농업소득 늘어도 농가 생활은 '팍팍'

어렵게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짓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과 부채가 증가하면서 손에 쥐는 실질소득은 거의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평균 3452만원으로 늘었지만 농업경영비가 가구당 2061만3000원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농업소득률이 낮아지는 등 농가가 농사로 벌어들이는 소득 구조는 악화됐다.

농업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빼고 이를 총수입으로 나눈 농업소득률은 32.7%에 불과했다. 2010년 37%, 2011·2012년 33.1%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 1000만 원을 벌어들였을 때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은 327만 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농업소득이 높아졌지만 경영비가 그 이상으로 증가한 탓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농가자재와 유류·사료·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다,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경지면적 1ha 미만의 소규모 개별농가 단위 경영을 하고 있어 비용 절감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자산은 줄고, 부채는 늘어...농사만으론 힘들다=농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농업경영비만이 아니다. 지난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가구당 평균 4억5800만원으로 2012년 4억787만2000원에 비해 1.8% 감소했다. 토지·건물·비품 등 고정자산은 3억301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으나, 유동자산이 7045만8000원으로 28%나 줄었기 때문이다.

자산 감소를 가져온 또 다른 이유는 부채의 증가다. 가구당 부채는 2736만3000원으로 2012년에 견줘 0.4% 증가했다. 특히 농업용이 아닌 가계용 부채가 772만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0%나 늘어나며 전체 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겸업용 등 기타 부채의 증가율도 11.4%에 달했다. 가계지출이 많아진 것도 부채 증가의 한 요인이 됐다. 지난해 농가는 가구당 평균 3026만4000원을 사용했다. 전년 대비 10.1%나 늘어난 수치다. 연금 및 사회보험 납부금 등 비소비지출이 많이 증가한 탓이다. 소비 지출은 2418만4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8.4% 증가했지만, 비소비지출은 608만 원으로 17.5%나 급증했다.

◇전업농·겸업농 소득차, 전남 농가소득 평균 이하=농촌이 농사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지적은 전업농과 겸업농의 소득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전업농의 소득은 가구당 평균 2686만4000원으로 1종 겸업(농업수입이 농외수입보다 많은 경우)농가 3905만4000원, 2종 겸업(농업수입이 농외수입보다 적은 경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난 29일 완도 노하도를 찾은 농협전남지역본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단이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점검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농기자재·사료·인건비 지속 상승
경영비·부채 증가로 수익구조 악화
지난해 실질소득 32% 불과
농기계 임대 등 비용 절감대책 시급

우) 농가 4297만5000원보다 각각 31.2%, 37.4% 낮았다. 전업농이란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를 말한다.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였다. 지난해 제주도 지역 농가들의 평균 소득은 4164만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4000만원을 넘겼다. 반면 농도인 전남과 전북은 각각 3385만8000원과 3086만9000원을 기록, 평균(3452만4000원) 이하로 저조했다. 소득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경남으로 2994만6000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농기계 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농기계은행의 확대, 공동 영농과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정책자금 금리 인하, 각종 직불제의 확대 등을 통해 생산비는 줄이고 소득을 높이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작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밭 고정직불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며, 전체 농업정책 자금(2013년 말 현재 24조3000억원) 중 고정금리(3%) 자금 비율이 58%나 되는 만큼 이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61.79 (-2.98)	금리 2.87%	(0.00)
▲ 코스닥 559.34 (+2.37)	▲ 환율 1033.20원 (+2.60)	

또...양파 대란 오나

재배면적 전년보다 19% 증가...마늘은 15% 감소

최근 양파의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정부가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본격 수확기를 앞두고 추가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양파·마늘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만3908ha로 2013년산 2만36ha보다 19.3%(3872ha)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12년 양파 수확량이 21.3%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자 이후 농가들이 생산량을 늘린 탓이다.

거기다 대체작물인 마늘의 가격 하락과 마늘 파종기에 맞은 강우로 마늘농가가 양파를 정식했기 때문이다. 마늘보다 양파 생산비가 적게 드는 이유도 있다. 시도별 양파 재배면적은 전남이 1만

2080ha로 가장 많았고, 경남(5294ha)과 경북(2602ha), 전북(1654ha) 순이다. 이들 4개 지역이 전국의 90.5%를 차지했다. 양파가격은 하락세에 있다. 도매가격 기준 1kg 상품의 가격은 이달 633원으로 1월 810원, 2월 774원, 3월 687원에 이어 하락추세가 이어졌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0% 이상 급락한 수준이다.

반면 양파와 대체작물인 마늘의 재배면적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4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만5062ha로 전년 대비 14.6% 줄었다. 지난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늘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한 경우가 많았다.

시도별 마늘 재배면적은 전남(7374ha), 경남(5538ha), 경북(3863ha), 제주(2980ha), 충남(2505ha)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지역이 전국의 88.8%를 차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새끼우렁이농법 늘린다

전남도 9만3000ha로

전남도는 올해 친환경 유기농업의 안정적 정착과 무제초제 농업 실현을 위해 지난해보다 1만3000ha 늘어난 9만3000ha까지 새끼우렁이 농법을 확대해 지원한다. 벼논에 제조제를 사용하지 않아 생태환경 유지·보전 및 친환경 유기농 인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새끼우렁이 보조지원 농가 공급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내 업체에서 생산한 새끼우렁이를 공급하도록 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에도 22개 시·군 8만ha 새끼우렁이농법을 실천해 일반 합



성 제조제에 비해 노동력 절감과 40~50%의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씨래질 직후 10a당 1.2kg(1200마리)을 논에 넣어 주면 99% 이상 제조효과가 있어 노동력 절감, 일반 제조제 대비 비용 절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l@

"꼬막·바지락 안심하고 드세요"

식약청, 177건 검사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부터 시중에 판매 중인 꼬막, 바지락, 진주담치와 같은 패류와 피낭류(미더덕 등)의 독소 검사를 시행한 결과, 177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패류 독소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검출된다.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는 대부분 자연 소멸한다.

패류 독소에 중독되면 섭취 후 30분이 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이어진다. /연합뉴스



aT, 中 칭다오에서 국산 다육식물 판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6~27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선인장 등 국산 다육식물 판촉행사를 열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다육식물은 선인장 등 체내에 다량의 수분을 함유한 식물을 뜻하며 주로 사막이나 높은 산 등 수분이 적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란다.

이번 박람회에는 칭다오에서 6개월간 열리는 세계연예 박람회 개막일에 맞춰 개최했으며 국산 다육식물 100여 종을 중국 소비자에게 선보였다.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중국의 주요 소비시기인 9월을 앞두고 꾸준히 국산 다육식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공인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